

“옵티칼 사태, LG디스플레이 공급망 책임 다하라” 금속노조, 20일 엘지트윈타워 앞 기자회견 ... 국제인권규범 이행 촉구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 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 한국옵티칼) 위장폐업과 대량 해고에도 버젓이 그곳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엘지 자본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를 외면·방조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현환 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화재 직후 니토덴코에 한국니토옵티칼(아래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을 통해 계속 납품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한국옵티칼지회에 따르면 엘지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LCD 편광필름을 사용해왔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화재 이후,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을 폐업·청산했다.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구미공장 물량은 니토

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모두 가져갔다. 현재 니토옵티칼이 엘지디스플레이에 기존 물량을 납품한다. 물량이 늘자, 니토옵티칼은 노동자들을 더 고용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들은 외면한 채 엘지디스플레이는 물량수급에만 신경썼다”라며 “고객사 납품 약속 지키겠다고 한국옵티칼 노동자는 불난 공장에서 기계를 돌렸는데 엘지디스플레이는 제 잇속만 챙겼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지회장은 “엘지디스플레이와 니토덴코가 옵티칼 사태를 두고 사전 교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 사태와 니토덴코 먹튀 공범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지디스플레이가 국제 인권 규범을 어겼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엘지디스플레이는 원청기업으로서 공급망 기업에 대한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당연히 한국옵티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UN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 인권 규범들이 있다. 기업은 자기 자신이 야기한 부정적 인권 영향은 물론, 자신과 연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김두나 변호사는 “엘지디스플레이 스스로 국제 인권 노동 기준과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 노동·인권과 기업 윤리 등에 따른 공급망 관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이번 한국옵티칼 사태를 보면 엘지디스플레이가 내세우는 경영이념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 주요 고객사이고, 니토덴코는 엘지디스플레이 물량 유지가 필요하기에 한국옵티칼 청산 결정은 사실상 엘지디스플레이 용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김두나 변호사 주장. 김 변호사는 “엘지디스플레이의 용인과 방조는 명백한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엘지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 사태에 더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고용 승계를 위해 엘지디스플레이가 니토덴코에 원청기업으로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지디스플레이 사측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니토덴코 인권 실사 관련 정보 제출 ▲니토덴코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와 구제책 마련 등의 요구를 엘지디스플레이 사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옵티칼지회 조합원 7명은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미공장 등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지회는 구미공장 농성 569일, 고공농성 226일, 평택공장 농성 94일째를 맞았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노동자 겁박하는 한화오션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별 고발 ...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펼치는 한화오션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화자본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일식 노조 경남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화자본은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노동조합과 많은 합의를 했다. 단체협약 준수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함께 한화오션의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화

자본은 발톱을 드러냈다”라며 한화자본의 반노동 행태를 규탄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사는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절차에 따라 확보 후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한화자본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김동영 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한화자본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단체교섭에는

불성실하다”라며 “노동의 정당대가 지금 역시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자본은 매각 당시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김 부지회장은 “한화자본은 특히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고 개별 조합원들을 고발하고 있다. 명백한 현장 탄압, 부당노동행위”라며 “한화오션 전체 구성원이 사측의 노동조합 말살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